

제 2호 2011년 2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Sol은叉松의 소나무를 뜻합니다.

제 2호 2011년 2학기



C O N T E N T S

04 SOL-hospital개원



05 축하해요



- 권선희/이수정학생 전국영어말하기대회 대상수상
- 대학교육역량사업 우수사례 초청컨퍼런스 수상

06 축하해요

- 안정섭학생 로타리재단 장학금으로 아프리카 가나 유학
- 김정은학생 간호학과 교환학생 선정

07 이번학기에 실시된 특강소개

- 서울대학교병원 김명애 간호본부장 특강
- 충남대학교병원 심희숙 간호부장 특강
- 미국간호사 Catherine B. Pinch 특강



- 세브란스병원 박영우 간호부원장 특강
- 송재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초청특강
- 정호원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정책과장 초청특강

08 우송간호엠베서터(SNAC)창단 공무원반수업을 듣고 나서 (학생수기)

09 제2외국어과목을 듣고 나서 (학생수기)

10 제1회 우송모의유엔에 참가하고 나서 (학생수기)



11 제2회 간호학과 학술제 개최 보건복지부 후원 절주동아리 '主人'



12 하계해외연수



- 일본 해외연수
- 말레이시아 해외연수
- 필리핀 해외연수

13 동계해외연수프로그램소개

14 호주간호사 출신 최애란교수님 인터뷰

15 무료 혈압혈당측정 봉사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정영목
발행처. 우송대 간호학과 편집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Tel: (042)-630-9290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정보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동정

우송대학교(총장 John John E. Endicott) 간호학과는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확고한 임상실습기관 확보 및 산학협력교육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학기 동안 아주대학교병원, 미 육군 121병원, 명지병원 등 국내의 우수한 병원들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미 육군 121병원과 실습협약을 맺고 학과 재학생들의 실습을 추진한 이현주 간호학과장은 두 기관의 성공적 협조와 교류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미 육군 병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한편, Fairmount State University(사진)와는 교환학생 협약을 맺어 우송대학교 등록금으로 미국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명실 공히 세계화를 주도하는 간호학과로 자리매김 했다.

2009년 개설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발전을 통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추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실습기관현황

- ▶ 삼성서울병원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세브란스병원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 ▶ 미 육군 121병원
-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 충남대학교병원
- ▶ 아주대학교병원
- ▶ 국립 공주병원
- ▶ 건양대학교병원
-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 ▶ 베스티안병원
- ▶ 서울여성병원
- ▶ 미래여성병원
- ▶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 ▶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최첨단 모의 병원 Sol-hospital 개원식 열려...”



우송대학교가 2011년 9월 29일 정보과학관 5층에서 Sol-hospital 개원식을 가졌다. Sol-hospital은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춘 모의 병원으로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임상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부에는 실제 환자처럼 기능하는 심맥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 등을 갖춘 소아과 시설 등이 있다. 심맥은 전신에 센서가 있어 조작하는 대로 말하거나 약을 주입하는 대로 기록이 되며 소아과 시설에서는 출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모성 간호와 신생아 실습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Sol-hospital은 이처럼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임상 적응력이 높은 졸업생 배출이 기대된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우수한 평가

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습실과 발전된 커리큘럼을 통해 우송대 간호학과의 발전 가능성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 11월 1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삿포로 시립대학교 디자인학과와 간호학과 교수들이 이번에 신설된 Sol-hospital과 실습실 수업 등을 참관했고 이 과정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직접 일본어로 안내와 실습실 소개를 맡아 우송대 간호학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의 성과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염영지 기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00%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도입



글로벌 간호사 양성에 앞장서는 우리학과의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도입했다. 이번에 초빙된 June II A.Kiblasan 교수님은 간호사에 대한 남다른 사명을 갖고 계신분으로서 필리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관련 연구를 하시며 학생간호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본 학기에 학생들은 June 교수님과 함께 1학년은 해부학, 2학년은 건강사정, 3학년은 Intensive global nursing, 아동간호학과정을 마쳤다. 2학년 이정아 학생은 임상에서 직접 쓰

는 전문용어들을 원어민 교수님께 직접 배워 더 정확히 익힐 수 있었고 NCLEX-RN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원래 이전부터 2, 3학년은 외국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외국인교수님이 직접 수업함으로써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글로벌 간호인재상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후문이다.

>>김규영 기자

권선희, 이수정 학생 전국 대학생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얻어



지난 10월 8일, 솔브릿지 국제대학교 TJB 주최인 전국 대학생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시대회에서 우송대 간호학과학생 2명이 학과의 명예를 드높였다. 전국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널리 알린 주역들은 2학년 권선희, 이수정 학생으로 대상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대회에서 이들은 지난 하계해외연수프로그램에서 English Nursing Camp in The philippines를 통해 깨달은 필리핀의 의료환경 및 복지환경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의료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료기회와 희망을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간호학생으로서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시

간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결과에 연연해하지말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였는데 놀랍게도 가장 영예로운 상을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큰 힘이되어준 간호학과 학우들과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앞으로 이들이 간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희망을 기대해 본다.

>>김규영 기자

대학교육역량사업 우수사례 초청컨퍼런스 수상



2011년 12월 22일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2011년도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학 교육역량사업 우수사례 초청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에서 간호학과 2학년 안정섭 학생이 구두발표부문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정섭군은 "우리가 다른 학교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학교와 학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라고 소감을 밝히며 빙그레 웃었다.

>>김보경 기자





김정은 학생, 우송대 간호학과의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정



글로벌 간호사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간호학과 2학년 김정은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이 학생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1년 동안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환학생으로 가는 학교는 St. cloud state university라는 곳으로 미국 중북부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명문대학교이다. 김정은 학생은 이곳에서 성인간호, 노인간호, 아동간호, 모성간호, 간호전문직과 윤리 등 간호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번 교환학생프로그램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졌는데, 김정은 학생은 iBT 81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원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토플성적과 서류심사를 거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환학생으로 발탁되어 간호학과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에 김정은 학생은 졸업하고 나서야 올 줄 알았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얻게 되어 놀랍고 이런 기회를 준 학교와 관심을 가져준 학과 및 학우들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비추었다. 김정은 학생은 내년 1월에 떠나기 위해 현재 비자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유학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등 바쁘게 준비 중이라고 근황을 공개했다.

>>김규영 기자

안정섭 학생, 로타리재단 장학금으로 7월부터 아프리카 가나 유학예정



올해는 유난히 간호학과에 경사가 많던 한해 였다. 그 중 안정섭 학생의 유학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유학은 로타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친선사절장학금을 지원을 통해 가게 되었다. 이 장학금은 1년 간 해외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유학 희망 국가랑 희망 교육 기관을 스스로 찾아서 정해야 지원 자격을 얻게 되는 장학금이다. 높은 학점과 iBT점수는 물론, 학과장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문, 영문으로 작성한 6장 이상의 에세이와 전공 및 영어 교수님의 추천서를 필요로 하는 등 심사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장학금이다. 또한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유학국가에서 10회~15회 정도 청중에게 프레젠테이션 및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고,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안정섭 학생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뻐하였다. 흥미로운점은 유학 지원 국가를 아프리카로 결정한 것인데 재단의 주요 원칙이나, 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봉사정신과 국제이해 및 세계평화와 관련이 깊고 살면서 직접가보기 힘든 나라여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안정섭 학생은 아직도 얼떨떨하지만 1년 동안 그 나라에 머물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오는 값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학생은 내년 7월에 출국예정이고 가서 공부 할 학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정이다.

>>김규영 기자



이번학기에 실시된 특강소개



서울대학교병원 김명애 간호본부장 초청특강

10월 19일 본 대학 가정관에서 김명애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을 초빙해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김명애 간호본부장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설명과 서울대학교병원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간호부의 현황에 대해 강의했고 학생들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규영 기자



충남대학교병원 심희숙 간호부장 초청특강

간호전문인재양성을 위해 충남대학교병원 심희숙 간호부장을 초청하여 지난 11월 11일 (금) 2, 3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본 대학 내 시청각실에서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이날의 초청 연사였던 심 희숙 간호부장은 '전문 간호인의 자세' 라는 주제로 미래의 간호 주역들이 갖춰야할 덕목과 자세들을 전했다.

>>유선지 기자



미국현역간호사 Catherine B. Pinch 초청특강

11월 16일 또 하나의 특별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 날 초청강사로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전문 간호사로 일한 Catherine B. Pinch가 초대되었다. 그녀는 미국간호사, 국제단체간호사, 미국 해군간호사, 미 평화 봉사단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본 강연에서 그녀가 겪은 많은 경험과 일화들을 소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또한 강연이 끝난 후 Catherine B. Pinch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장학금을 기부할 의사를 밝혀 화제다.

>>지다혜 기자



세브란스병원 박영우 간호부원장 초청특강

지난 11월 22일에 신촌세브란스병원 박영우 간호부원장을 초청하여 이 대학내 시청각실에서 '간호의 비전' 이라는 주제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특강에서 박영우 간호부장은 대한민국의 간호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 그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사의 역량에 대해서 강조하여 학생들이 향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유선지 기자



송재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초청특강

12월 29일 본 대학 정보과학관 101호에서 송재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을 초빙해 특별 강연을 가졌다.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측면에서 본 건강보험과 연금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로 한 이번 특강은 우리나라의 보험제도과 정책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게 해 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염영지 기자



정호원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정책과장 초청특강

지난 1월 5일 정보과학관 101호에서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 계획에 관한 특강이 열렸다. 이 강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에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의 제 2외국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한 의료인 교육 계획을 설명하였다.

우리 학과의 거울, SOL-nursing 엠베서더 Club 발족



글로벌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10월 SOL-nursing ambassador club(SNAC)을 발족하였다. 선발된 이들은 1, 2학년 총 11명으

로 구성되어있고 영어팀과 일본어팀으로 나뉘어져있다. 해외유수대학에서 본 학과를 방문하는 횟수가 매 학기마다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방문하신분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접하고자 창단하게 되었으며 선발기준은 원어민교수와의 면접을 통한 외국어구사능력 및 단정한 품행을 갖춘 학생이었다. 현재 이들은 이인환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지지와 가르침하에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덩달아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선지 기자

간호사의 또 다른 길을 위한 '공무원반' 운영

등불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간호를 상징한다. 반딧불을 연상케 하는 등불은 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다. 공직 또한 나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 단순히 안정된 직장을 넘어, 내 작은 힘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처음 입학 했을 때에는 우송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는데 학교에서 공무원 준비반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에 흥미가 생겨 지원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공무원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지난 학기에는 뻘뻘한 학습 스케줄과 병행하느라 슬럼프도 많이 겪었으나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일 큰 힘이 되었던건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끼리 함께 울고 웃고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이었다.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기나긴 장거리 레이스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이 되어 모두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었으면 좋겠다.

>>1학년 하지운 학생(학생수기)



“영어는 기본!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도 해요!”



우리 학과가 2011년 2학기 부터 제 2 외국어 과목을 증설했다. 증설한 과목은 러시아어, 중국어이며 이로써 앞서 개설된 일본어

와 함께 1학년 전원은 셋 중 택일하여 모두 제 2외국어 듣게 되었다. 제 2외국어를 들은 지 한 학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 예상외로 빠르게 팔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어를 들은 나 또한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몸소 느끼며 제 2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엄청난 흥미를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의료 시장 개방이나 동아시아 의료허브구축으로 인해 외국계 의료

시설들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며 외국인 환자의 수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제 2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마침 학교에서 제 2외국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우리들도 2학년 때까지 제 2외국어 강의를 들은 후 강의를 들은 모든 학생은 3학년이 되기 전 어학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고 있어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되고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움으로써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학과장님의 말씀대로 제 2외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동안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춰 ‘국제간호사 양성’이라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모토에 따라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간호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1학년 엄영지 학생(학생수기)



뜨거웠던 제 1회 우송모의유엔에 참가한 간호학과 15명



지난 12월 17일 제1회 우송대학교 모의 유엔총회(WSMUN)가 솔브릿지 국제대학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우송대학교 학생과 솔브릿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고, Human trafficking, Global warming, Nuclear issues, Security counci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등 총 5개의 주제에 대해 영어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리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5명은 가나,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태국, 필리핀, 호주, 영국 등의 대표가 되어 Human trafficking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대회날짜가 다가올수록 모두들 긴장하였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다들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잘 해주었고 우리 모두 대회당일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어느 때 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의안들이 도출되어 만족스럽다고 입 모아 말했다. 또 모의UN담당 교수였던 Esther Dalseno교수는 특히 간호학과학생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영어실력 뿐 아니라 사고력도 모두 뛰어나 매우 인상 깊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우리도 모르게 으쓱하였다. 한편 이날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WSMUN참가 증명서가 수여되었다. 이번 우송모의유엔은 내년에 우송대에서 개최될 2012 National Model UN Conference를 위해 열렸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2012 National Model UN Conference는 전국의 대학생은 물론 전세계 대학생

들이 참여하는 모의 UN회의로서 그동안 이 대회가 서울권 대학에서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우송대에서 열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2012 National Model UN Conference의 의장으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윤단비 학생이 뽑혀 우리에게 더욱 의미깊은 회의가 될 것 같다. 내년에 개최될 회의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

>>2학년 유선지 학생(학생수기)



“제 2회 간호학과 학술제 개최”



우리학과는 지난10월 학과 시청각실에서 제 2회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학과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1회보다 더욱 큰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흥미가 더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구성된 프로그램으로는 환자교육, 상황극, 골든벨 세 가지였으며, 환자교육은 질병에 대해 개인 별로 발표하는 시간이었고 상황극과 골든벨은 팀별로 각각 상황극과 간호학 퀴즈를 맞추는 시간이었다. 이번 학술제도 역시 전 학년이 한데 어우러져 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학술제의 일환으로 혈압측정도 하였는데, 이는 같은 날 실시되었던 수시 면접의 면접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혈압 측정을 실시한 학생들은 ‘실땀없이 바깥지만 큰 보람을 느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이번 학술제를 통해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식들도 익힘으로써 참된 간호를 구현하는 간호전문인의 길에 한발 더 다가선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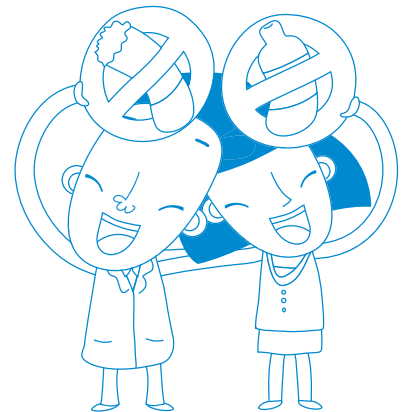
>>엄영지 기자

보건복지부 후원 절주동아리 ‘주인’



우송대 학생들의 올바른 음주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다. 바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주인’이다. ‘주인’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대학생들의 절주문화 정착을 위해 후원하는 대학 내 동아리의 하나로서 지속적인 절주 행사를 통해 본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자가진단이나 혈압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을 플래시몹이나 자체제작한 판넬 전시 등의 행사를 통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우송대 절주 문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다혜 기자



하계해외연수



일본 나가사키대학 주최 재택간호컨소시엄 참가수기

일본 재택간호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나가사키 국제대학, 나가사키 시립대학, 나가사키 현립대학의 연합 컨소시엄에 나가사키 국제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다. 일본인 학생들과 그룹활동을 하면서, 각 케어시설과 재택요양 시설을 방문하고, 환자의 집에도 직접 방문하여 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일본도 병원-환자-약국 등의 연계라던가 재택간호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고, 아직 한국은 전혀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컨소시엄이 더욱 흥미로웠다. 1박2일 동안의 짧은 체험학습이었지만,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서 간호사와 환자간의 소통과 복지에 대한 생각을 더 넓힐 수 있어 뜻깊었다.

>>2학년 김아림학생



말레이시아 말라와 교정에서 영어와 통하다

우송대학교에서는 매년 토익경시대회를 개최해 성적 우수자에게는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의 공립대학인 말라야 대학에서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간호학과 학생 6명이 성적 우수자로 발탁되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수업방식은 매 시간 개별 발표시간을 배정하여 5분간 스피치를 하고 마지막엔 팀을 짜서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2학년 최보경 학생은 "무대 공포증이 있어 처음에는 발표가 두려웠으나 시간이 지나자 즐겁게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고 마지막 발표에서는 칭찬까지 받아 내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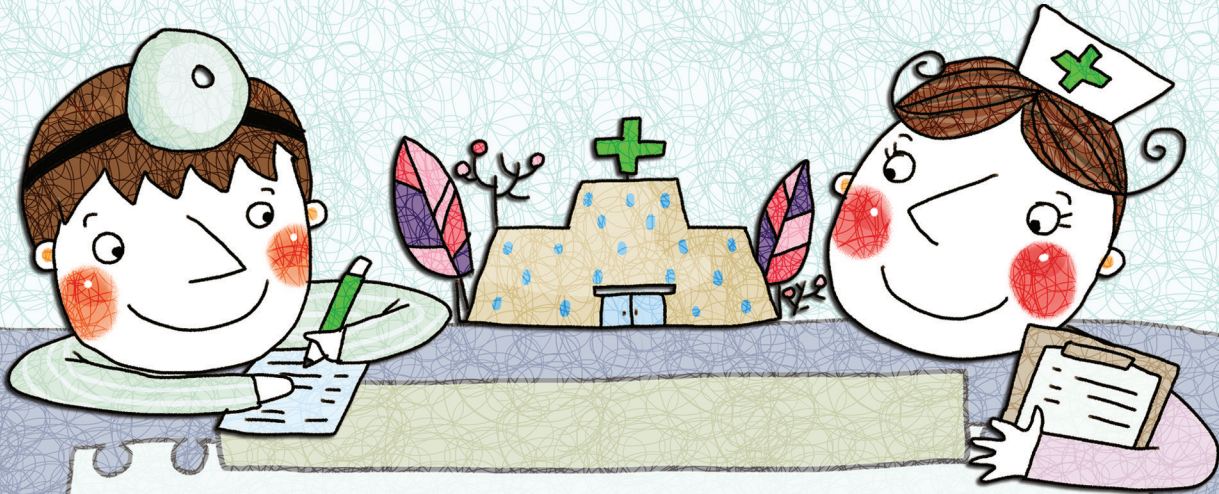
>>김보경기자



재학생 15명 필리핀 해외연수 파견

본 학과는 1, 2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계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와 협력하여 주최되었으며 하루 9시간씩 3주과정으로 타이트하게 진행되었다. 현지에서 외국어학습, 간호학습, 병원방문, 문화체험, 필리핀 학생들과의 교류, 과제 및 리서치를 포함한 자습시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해외 연수는 어학뿐만 아니라 전공과 그 이외에 현지학생들과의 문화교류 활동도 활발히 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간호인재양성이 목표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연수였다는 평이다.

>> 1학년 최연훈학생



2011 동계해외연수 프로그램 ‘호주 노인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 Super Intensive Program’ 진행.

호주 노인요양보호사는 호주의 노인복지산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노인들의 활동의 불편함을 돕고, 간병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번 연수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14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노인복지 선진국인 호주 노인요양시설 실습경험을 통해 영어능력 향상 및 선진국의 보건복지시스템 이해도 증진과 호주 주 정부에서 인증한 요양보호사자격증(Aged Care Certificate III) 및 응급구조 자격증 (First Aid Certificate)도 취득 하고 향후 관련학과 유학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한 조건부여 등을 기대하고 있다.





Erin Choi 교수님의 生소한 호주간호사 이야기

Q1. 호주 간호사와 한국 간호사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2학년 때 교양과목을 듣는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year 12, 즉 한국의 고3 시기에 자기가 지원하는 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을 듣고 대학에 가서는 1학년 때부터 전공과목만 듣고 실습도 1학년 때부터 나가요. 실습을 하면서 공부할 땐 하나씩 대학을 졸업한다면 바로 자격증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해 주자면 한국은 아직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와 의사는 각자 하는 일이 아예 나뉘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어요.

Q2. 호주 간호사를 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언제였나요?

물론 환자의 병이 낫는 것도 보람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도 보람 있었어요. 처음에 순찰을 돌다 어떤 할아버지를 보고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혈압을 잴는데 혈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할아버지를 간호사실 가까이 옮기고 가족들을 불렀죠. 결국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발견한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으셨어요.

Q3. 그렇다면 호주 간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언어적 문제였죠. 저는 호주에서 대학 3년을 마치고 간호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의사나 환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말도 빨리빨리 안 나오고 듣는 것도 완벽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

Q4.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Big fish in a small pond”라는 말이 있죠. 저도 한국에만 있을 때는 한국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처음 호주에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두렵고 후회스러웠는데 호수에 적응해서 지내다 보니까 ‘만약 내가 여길 안 왔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선 도전해 보세요.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2학년 김아림학생





나이팅게일을 만나다 - 무료 혈압혈당측정 검사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함이 가득했던 우송대 축제 참가자들에게 건강을 선물한 과가 있었다. 바로 올해 처음으로 축제에 참가한 간호학과로 바뀐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 학년이 한 마음이 되어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혈압 부스를 운영했다. 흰 가운을 입고 미소와 함께 성심껏 혈압을 체크해주는 모습은 마치 백의의 천사와도 같았다는 후문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번 행사를 의미있었고 보람있었다고 웃으며 표현하는 학생들의 미소에서, 밝은 미래의 간호를 엿보았다.

>>김보경 기자



제 2대 편집국

편집국장 정영욱(duddnrwjd@hanmail.net)

유선지(ysj7576@nate.com), 김규영(kky1991@hanmail.net), 김보경(cool8902@nate.com)

엄영지(youngji9204@nate.com), 오단비(odanby91@naver.com), 지다혜(flounder11@nate.com)